

Daily Auto Check

2021.1.25(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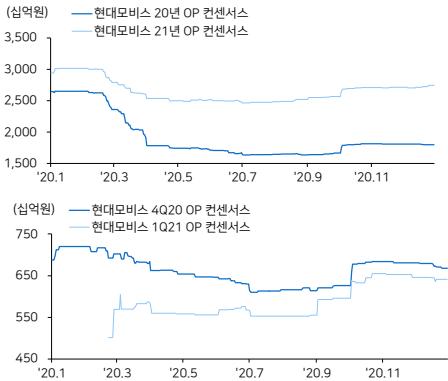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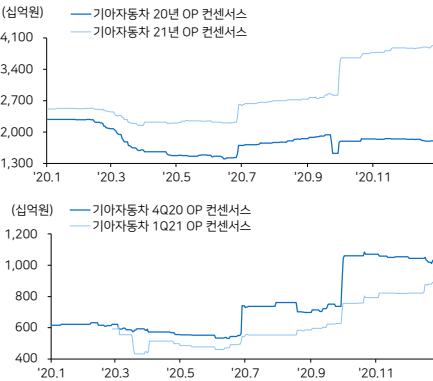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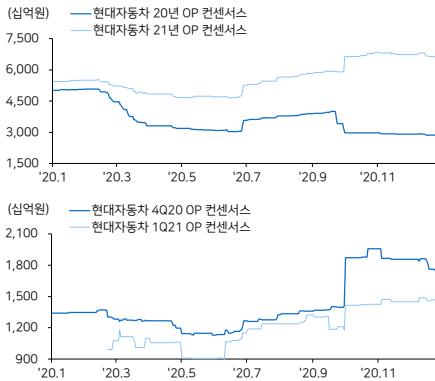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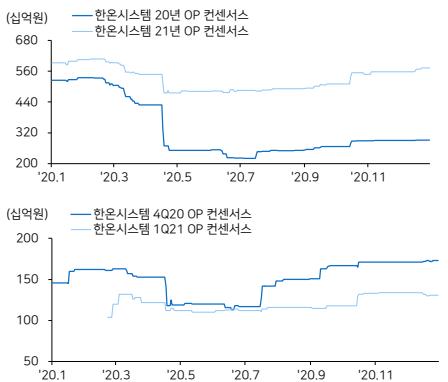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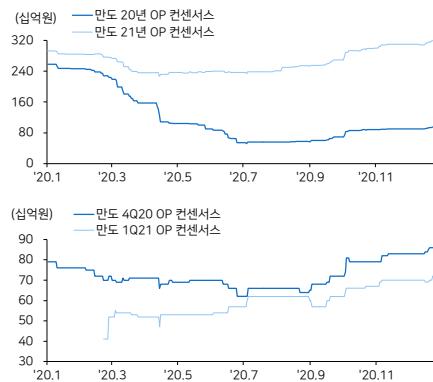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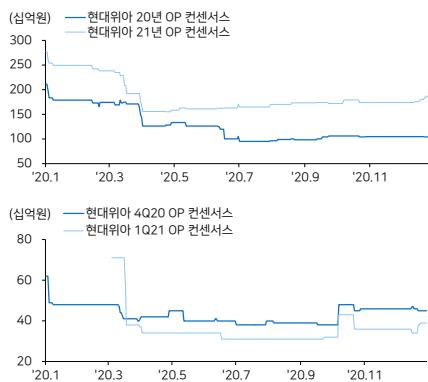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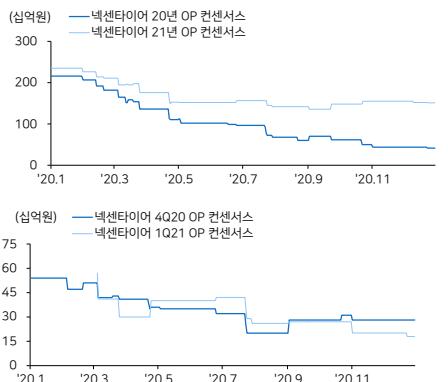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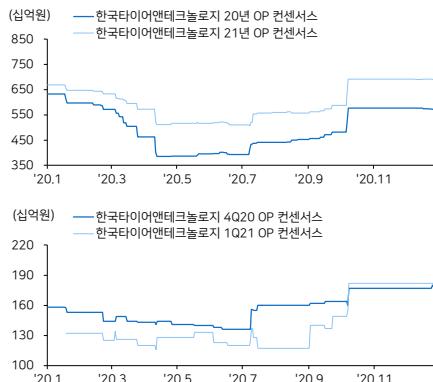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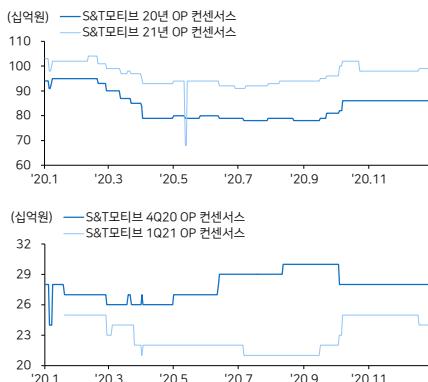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판매수 감소에도 미국·유럽서 점유율 신기록 (디지털타임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판매수 감소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수 감소와 함께 점유율도 하락하면서 고전.

<https://bit.ly/3r0JqBd>

SK배터리 장착한 코나 EV 페이스리프트 국내 주행사진 (오토스파이)

불과 1년 만에 볼릴 정도로 화제가 있었던 이전 코나 EV 모델은 LG배터리를 사용. 최근 코나 EV 페이스리프트에서는 SK배터리 장착한 모델을 출시. 아이오닉 5와의 판매 간접 효과로 인해 국내 판매는 하지 않을 예정.

<https://www.autospy.net/free/5209>

리콜 받았는데도 불난 코나EV…현대차 전동화 전략에 변수 될까 (연합뉴스)

최근 잇단 화재로 글로벌 리콜을 시행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소우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현대차그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https://bit.ly/2MoTvsj>

현대차, 첫 레벨3 자율주행차 '발레오' 라이다 단다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이 2022년에 출시하는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제네시스G90'에 벨로다인이나 아隳드 프랑스 발레오의 라이다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됨. 현대모비스가 600억원을 투자한 벨로다인과 라이다를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https://bit.ly/2Y7inHX>

GBC 105층 계획 접은 정의선, 아버지 숙원 대신 현대차 미래 택했다 (조선비즈)

현대차그룹이 당초 105층 높이(569m)로 건설할 예정이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설계를 50층 규모 3개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226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대차·만도 빠면 ESG A등급 '실종'…부품사 친환경흐름 '엇박자' (디지털타임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중 현대차그룹 계열과 만도를 빼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3곳 중 1곳은 C등급 이하에 머물러 다수의 자 부품사들이 친환경 모빌리티 흐름에 빌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3iFuY3r>

애플 "한국서 앱 개발자 직접 키우겠다" (매일경제)

최근 현대차그룹 등에 전기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제작하는 애플이 한국에 무로 개발자 스

<https://www.news.naver.com/article/0009/0004738212>

아우디파스바겐, 전기차 주행거리 논란…'디젤게이트' 재현되나 (아이뉴스24)

아우디파스바겐이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오류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디젤게이트' 악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우디의 첫 순수전기차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http://www.inews24.com/view/133739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